

家具— 그 造形的 發展

朴 弘 — 건축가 · 中央大 교수

■ 語義 및 語源

인간의 생활을 담는 容器가 住建築이라면 家具(Furniture)는 생활의 美와 편리를 도모하는 住生活의 道具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家具, 즉 英語의 "Furniture"는 佛語의 "Fourniture" (支給品 · 供給品)에서 진화된 말인데 獨逸語의 「모벨」(Möbel)은 佛語의 「므블」(Meuble)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다시 라틴語의 "Moveo" (움직이다)가 語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家具라는 말의 뜻은 고정적인 家屋에 대하여 움직일 수 있는 道具, 또는 房을 裝備(Furnish)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옛날에는 Chest이 結상으로 사용된 예가 있고 근대적인 것으로는 소파 베드(Sofa bed)가 있으며 접었다 폈다 하는 家具(Folding furniture)가 운데는 옛날부터 結상 · 卓子 · 寢台 등이 있었다.

근래에 와서 生活空間의 능률적이고 다각적인 사용, 경제성, 이동과 수송상의 편의 및 生活方式(특히 기계 가공과 대량생산) 등의 요구로 單位家具(Unit furniture), 組立式家具(Sectional furniture), 分解式(Knock down system), 部分組立式(prefab. system)의 家具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家具 외에 建築의 部分으로 만들어진 「빌트 인 퍼어니처」(Built-in-furniture)가 있는데 이것은 收納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다. 屋外用 家具, 예를 들면 庭園家具(Garden furniture)나 道路家具(Street furniture)도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재료와 제조를 요하는 점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는 일반가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 家具의 分類

가구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分類될 수 있는데 建物種類에 따라 분류하면 ①住居用 家具 ②公共用 家具 ③商業用 家具 등으로 別된다.

가구의 移動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면 ①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可動家具 ②건물에 차맞추어 건물과 一體化해서 만든 收納用的 붙박이 家具(Built-in furniture) ③Unit家具(붙박이가구+가동가구) 등이 있다.

現代性向에 의하여 분류하면 ①單位家具(Unit furniture) ②組合家具(Sectional furniture) ③分解式 家具(Knock down system) ④部分組立式 家具(prefab. system) 등으로 나뉜다.

또한 人體動作을 中心으로 한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人體動作을 中心으로 한 분류
- (A) 人體支持用 家具(人體系家具)
 - *직접 人體를 지지하는 가구
 - 작업계 : 작업의자
 - 휴식계 : 휴식의자, 침대
 - (B) 作業用 家具(準人體系家具)
 - *간접적으로 人間에 관계하고 人間動作에 보조가 되는 가구
 - Table, desk, 台類, 廚房 家具 등.
 - (C) 整理收納用 家具(선반형, 상자형, 서랍형)
 - *整理를 목적으로 하는 것(상자류)
 -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것(선반류)

■ 住居生活과 家具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은 外界와 구획하기 위한 壁 · 天井 · 바닥이라는 세가지의 建築要素에 의해 도출된 室內空間이다. 그러나 단순히 실내공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인간의 생활행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道具나 家具들을 만들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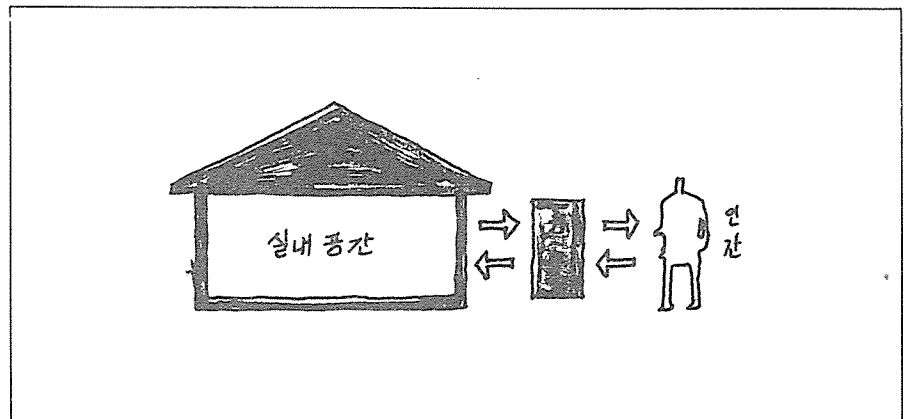
었다.

人間이 다른 動物들과 구별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家具나 道具를 만들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 발전과정에서는 때로는 石器 · 木器 · 骨角器 · 土器 등에서 靑銅器 · 鐵器時代를 거쳐 오늘날 Plastic 등이 사용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建物과 家具와 人間の 三者關係에 있어서 가구는 건물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運轉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건물은 가구라는 媒体를 통하여 비로소 인간에게 잘 쓰여지고 또 인간은 가구를 통하여 건물을 자기의 目的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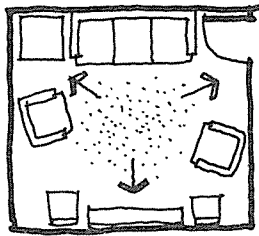
따라서 家具는 건물과 인간 사이에서 家事能率(정리 · 수납 · 작업 등), 休息(취침 · 안락 등), 團樂(식사 · 사교 · 오락 · 응접 등)이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室內空間內에서 인간과는 가장 친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생활의 便宜度나 즐거움은 家具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원래 西歐型住居에서는 각실에 가구가 없으면 室은 실로서의 用途의 機能을 다하지 못한다. 예컨대 食事室(食卓 · 食事用), 寢室(침대), 居室(안락의자 · 테이블 등) 등 가구가 설비되어 비로소 室이 쓰임을 갖게 된다. 때문에 서구형 주거에서는 家具란 인테리어 디자인의 필수적이며 不可缺의 條件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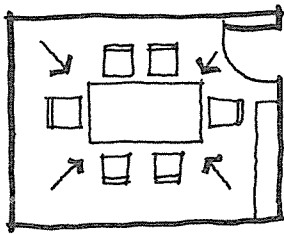


■ 家具의 配置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 건축공간에는 갖가지의 기능을 갖는 방들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그 각방들이 제 나름의 바람직한 기능발휘를 위해 설비되는 가구와 그 배치에 따라 명확한 용도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가구의 배치는 방의 기능을 좌우하는 요점이 될을 감안할 때 동선이나 작업능률상 그 배치는 세심한 배려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遠心的(분산적)配置(거실)



求心的(집중적)配置(식당)

가구의 배치방법에는 크게 集中的(求心的)配置와 分散的(遠心的)配置로 분류될 수 있다.

침실이나 식사실처럼 그 방에서의 행동이나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집중적배치가 채택되고 거실(Living room)과 같이 그 목적이나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에는 분산적(원심적)배치가 쓰여진다. 또한 집중적으로 가구를 배치하면 室内가 정돈되어 보이는 것은 하나 딱딱한 느낌이 드는 반면 분산적 배치는 다소 혼란한 느낌이 드는 대신 색다른 실내구성과 함께 Easy living의 사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

■ 家具配置의 Design 原則

家具配置는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에 의하여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이나 日照·通風에 따라 수시로 가

구의 배치를 바꾸는 것도 季節感이나 室内에 새로운 분위기를 도입하는데 효과가 있다. 다음은 합리적인 家具配置上의 留意點을 10가지로 간추린 것이다.

①가구의 설치는 놓여질 곳의 크기에 따라야 한다. 고로 사용목적 이외의 것은 놓지 않도록 한다.

②가구 사용자의 動線에 적당하게 놓으며 他人이 사용중에 동작을 차단하는 위치가 안되도록 배치한다.

③大小家具가 조화롭게 배치될 것. 즉 큰 가구가 한쪽에 치우치면 재료 자체가 갖는 것보다 重量感을 주도록 해야 한다.

④큰 家具는 벽면과 平行되게 놓아서 방의 통일감을 주도록 한다.

⑤椅子나 Sofa옆에는 간단한 桌子나 電氣스탠드·홀로아램프 등의 補助照明器具를 배치토록 한다.

⑥너무 많은 가구는 답답하고 너무 적으면 허전한 느낌을 주므로 心的均衡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⑦가구사용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줄 것.

⑧넓은 방에는 大型家具, 작은 방에는 小型家具를 놓으므로써 空間의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⑨窓이나 出入門의 開閉, 그림이나 장식물이 가리지 않고, 電氣콘센트사용에 障害가 되지 않도록 家具配置를 할 것.

⑩家具와 그림, 장식물 등과의 조화를 고려토록 한다.

■ 家具디자인의 基本條件

家具는 機能·材料·構造·形態·經濟 등의 제요소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성립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나 설명의 편의상 그 하나하나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A) 機能(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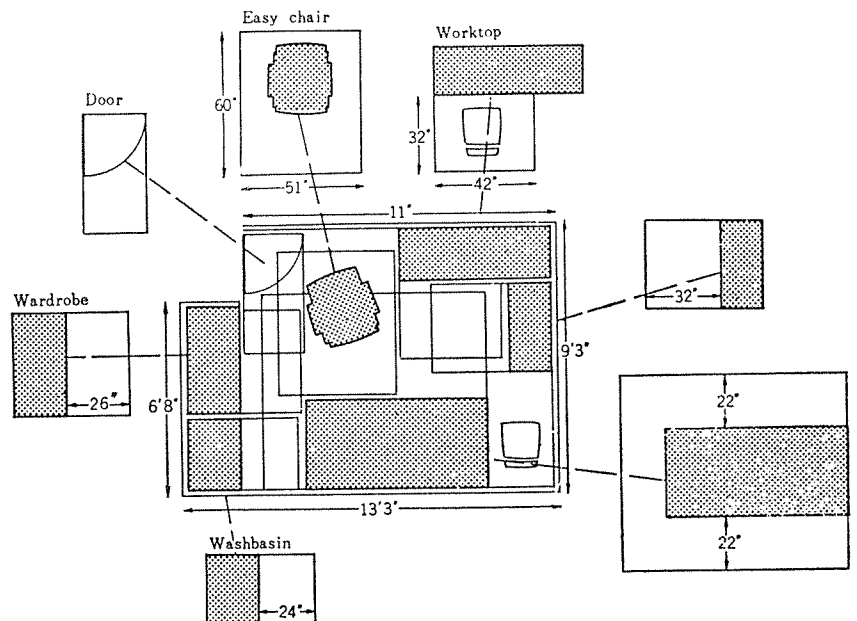
사용하기 좋고 편리할 것. 이것이 가구의 기능인데 다른 모든 조건의 기본이 된다. 가구의 기능에 있어서 단일 기능에 대한 單一家具, 또는 單能家具는 가구디자인의 기본이며 그 제품도 이 종류의 것이 많은데 用途가 두개 이상인 多能家具(Multi-purpose furniture)도 품종에 따라 상당히 요구되고 있다.

(B) 材料(Material)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료와 구조가 문제된다.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각양각색의 새로운 재료들을 목적에 따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목적하는 바의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有機材料와 無機材料의 성질과 가공법에 정통하게 되는 것이 기능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된다.

(C) 構造(Structure)

구조의 본질은 견고함에 있다. 선



室空間을 要素가 되는 空間으로서 본 家具 레이·아웃의 基本 (BED ROOMS, a Design Center Publication, 英國)

택된 재료는 그 성능이 발휘되도록 재료에 적당한 가공법으로 만들어지고 조립되어야 한다.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자연히 형태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D) 形態 (Form)

기능이 형태를 지배하고 또 재료나 구조도 모두 깊은 관련이 있다. 이상의 3조건에서 형태는 스스로 결정된다. 따라서 표면적인 형태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기능·구조·재료 등의 조건을 적절히 통합 정리하는 것이 우수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기본이 된다.

(E) 經濟 (Economy)

가구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당연히 경제적 요소가 문제시 된다. 즉 대량생산에 의하여 시대적인 경제생활에 적당한 商品이어야 함이 중요한 조건이다.

그 외에 부연한다면 가구의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거주성의 관점에서 가구가 유리되거나 단지 상품으로서만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실내장비로서의 가구는 특히 인간생활의 거주공간에서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면까지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완전한 생활 환경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 家具의 造形的 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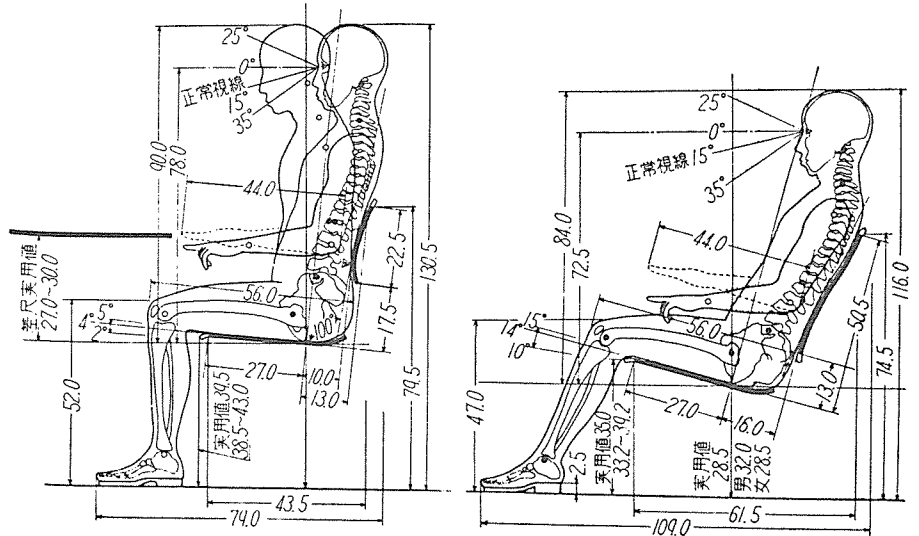
가구의 형태는 여러요소로 집약하여 형성된 것이다. 가구의 造形은 古代로부터 많은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지만 특히 과거 1世紀間에 材料·加工技術의 개발 및 진보에 따라 현저히 변화하였다.

재료가 같아도 加工技術이 진보하면 형태도 다른 형으로 처리되는데 예컨대 木曲椅子 등이 좋은 예의 하나이다. 또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그것에 수반된 加工技術에 의하여 한없는 형태적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家具디자인과 人間工學

사람은 옛날부터 여러가지 道具를 사용해 왔음은 이미 주시하는 바와같다.

최초의 인간들은 가까운 곳의 木材나 石材에 의한 것이었으나 얼마 후



프로토타입 (左: 作業用II型, 右: 休息用V型)

金屬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롭고 편리한 재료의 개발과 병행하여 사람들의 노력은 사용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을 회구하게 되었다.

産業革命 이후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새로운 공업화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발달과 그것을 다루는 人間과의 결합은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즉 人間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機械가 반대로 人間을 속박하고 生理的, 心理的으로 구속하여 피로나 상처의 것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機械나 道具가 그것을 취급하는 人間の 특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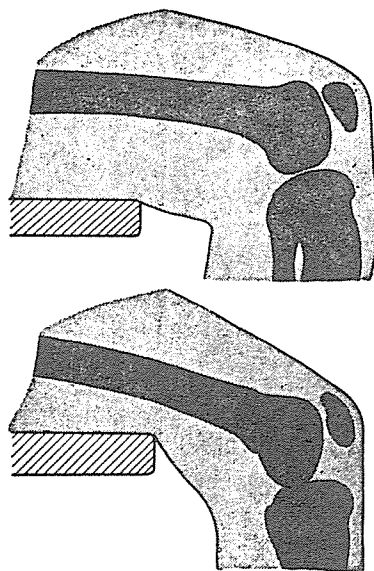
第2次世界大戰 때 機械나 道具는 人間을 출발점으로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이 人間工學 (Human Engineering)이라는 學問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인내나 경험에 의지하기 쉬운 디자인 분야에도 導入된 것이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人間工學에 기반을 둔 쾌적성추구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 人體工學에 의거한 Office 家具의 시스템化에서부터 Landscaping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참고사항은 이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家具發展의 흐름을 검토키로 한다.

■ 家具의 歷史

가구의 역사는 건축과 마찬가지로 매우 긴 세월에 걸쳐 발전해 왔다. 이미 인테리어 디자인사 (82년 12월호와 83년 1월호 참조)에서 논술된 바와같이 가구는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家具史는 곧 인테리어史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디자인의 대상으로서의 가구는 19世紀 이후에 생긴 새로운 대상—즉, 미싱·전화기·자동차·카메라·타이프라이터 및 기타 다른 지식, 특히 그史的發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대 Egypt를 비롯하여 西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수많은 예를 볼 수 있는데 지배계급을 위한 호화스러운 가구가 지금까지도 얼마간 남아있다. 그러나 서민계급의 생활에는 가



의자의 고저와 대퇴부의 관계 (上은 可, 下는 不可)

구의 질도 소박하고 간단한 형태의 기능적인 것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종류도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상상된다.

이집트의 匠人들이 간소한 결상과 작업용 상을 사용한 것이 벽면 등에 그려져 있다. 왕후의 가구는 실용성보다도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 기교를 부리고 色彩도 풍부하게 썼음을 알 수 있다.

材料는 木材가 주였고 의자는 四角 결상이나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 외에 다리를 "X"字形으로 접었다 펼 수 있는 의자도 있었다. Assiria의 玉座는 靑銅椅子였었다.靑銅家具는 Rome에서도 즐겨 사용되었고 Greece에서는 "C"字形으로 다리가 굽은 Klismos라는 경쾌한 의자가 널리 쓰이기도 했다.

침대나 식탁의 종류도 Greece의 것은 일반적으로 경쾌했지만 Rome의 가구는 다소 중후하여 거창하게 조각을 한 大理石 卓子가 그 좋은 예이나 中世의 가구는 寺院建築과 함께 발달하여 僧正의 좌석(Cathedra)은 특히 위엄이 있는 형식을 취하고 說敎台나 會衆用의자 등 建築樣式을 반영한 의장으로 제작되었다.

책상이나 선반류는 僧院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중요한 가구로 사용되었다. 民族大移動時代에는 귀족품을 넣어 운반하기가 편리한 책상이 특히 중요시 되었다.

中世紀를 통하여 중요한 材料가 된 것은 木材로서 특히 Oak는 쇠붙이와 함께 사용되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構造法과 工作法도 진보되어 찬장은 물론 의자에 틀이 응용되었다. 또한 中世初期부터 톱(Saw)이 발달하여 의자제작에 이용되었는데 이것은 민중의 생활에 동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北유럽이나 서유럽農村에 남아 있다.

르네상스期에 들어오면 가구는 건축양식과 발맞춰 彫刻의 무기도 중후한 것이 많았는데 건축양식의 추이와 동조하면서 차츰 家具의 독자적인 양식적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예를 들면 英國에서는 사용재료에 따라 오오크(Oak)시대·월넛트(Walnut)시대·마호가니(Mahogany)시대·새틴우드(Satin wood)시대로 구별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細分하면 엘리자베스樣式(Elizabethan style)·자코비안樣式(Jacobean style)·찰스2世樣式(Charles style)·퀸안樣式(Queen Anne style)은 월넛트時代이고 팀펜데일樣式은 마호가니時代·헤플화이트나 아담兄弟(Robert & James Adam)·세라톤樣式(Sheraton style)은 새틴우드時代와 부합되는 것이다.

英國의 가구는 樣式面에서 프랑스의 영향이 강하여 자코비안樣式은 루이13世(Louis XIII) 및 루이14世(Louis XIV)의 양식에 대응하고 칩펜데일樣式은 루이15世, 로코코(Rococo)양식에, 아담(Adam)樣式은 앙페르樣式(Empire style)에 대응한다.

19世紀에 荷蘭이 東洋進出을 기도한 결과 中國의 家具手法이 荷蘭을 통하여 英國에 들어가 「퀸안」과 같은 옷칠한 캐비넷트 描脚(Cabriol-leg) 또는 칩펜데일의 中國취향의 가구들을 낳았다. 또한 이 무렵부터 彫刻은 다소 후퇴하여 조각나무세공(Intarsia, Marqueterie, 佛)과 같은 平面장식이 출현했다. 각종 금속이나 빨종류를 사용한 지극히 섬세한 빨가구는 그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8세기초까지 實用을 위주로 한 소박한 컬러니얼樣式(Colonial style)의 가구를 낳았는데 이때부터 荷蘭의 가구양식이나 영국의 「퀸안」양식이 들어왔다. 그 이후 영국경향이 지배적이 되어 런던에서 들어온 家具가 높이 평가되었다.

19世紀의 歐美에서는 수요의 확대에 따라 각종 기성양식이 제멋대로 再現되거나 절충되어 양식적으로는 低俗해졌지만 차츰 機械加工이 도입되어 近代家具革新의 전야로 닥아서고 있었다. 1840년경 뷔엔나의 토오넛트(Michael Thonet)가 밤나무 목재를 사용한 木曲椅子를 제작하여 과거의 양식을 떠난 새로운 Form을 구하는 동시에 大量生産을 기도한 것은 그 表現의 하나인 것이다.

19世紀末에 이르러 「윌리엄 모리스」의 工藝運動을 계기로 하여 가구도 近代性을 획득하여 「아르 누보」(Art Nouveau)나 세세션(Seccesion) 운동 등 신선한 스타일을 제시하는 바가 있었다. 20世紀에 들어와 새로운 재료와 加工技術의 진보가 현저하여 이것을

구사하여 대량 생산방식에 대한 적응을 꾀하고 디자인을 科學的 基礎위에 올려 놓고 그 合理性을 높이는 태도가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1914~1918)은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生活文化의 진행을 저지했지만 戰後 Bauhaus의 作業 등이 계기가 되어 가구의 디자인은 크게 전환 되었다. 예컨대 건축의 구조방식인 캔틸레바(Cantileba)를 椅子構造에 적용한다든지 Steel pipe를 사용한 것 등은 그 表現의 하나이다. 이 시기에 「마르셀 브로이어」가 파이프椅子에 보여준 독창성은 높이 평가된다.

또 미스 반 델 로에(Mies van der Rohe),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의 기여도 커서 「로에」의 鋼管家具는 그 우수성이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다. 單位家具에 공헌한 「새스터」나 「슈빅바크만」도 일찌기 가구디자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의 建築大家인 「르 코르뷔제」나 「페리앙」도 曲木이나 鋼管, 輕金屬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을 개척하였고 핀란드의 建築家 「알바 아알토」는 合板 사용의 개척자로서 家具工藝에 새로운 局面을 열었다.

第2次大戰(1939~1945) 후 Design의 중심은 美國이 주도권을 쥐고 戰時工業에 의한 재료와 기술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발표하여 가구의 질과 형태를 바꾸었다. 특히 의자의 복잡한 더블 커브(Double Curve)의 人體를 받쳐주는 面의 형성은 이른바 오오거니 디자인(Organic Design)으로서 「찰스 임즈」와 「에로 사리넨」의 이름을 빛내 주었다.

家具材料로서의 木材는 Solid wood나 Bend wood에서 ply wood에 의한 成形合板이나 Laminated wood로 나아가 이들 加工術의 진보는 새로운 디자인分野를 확대시켜주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接着劑의 발달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成型技術의 진보는 Plastic Mould가 되고 Shell의 자유스러운 曲面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또한 金屬材料에 있어서도 鋼管은 鉄棒(iron Rod)이나 鉄糸와 교차되고 있다.

그리고 Form Rubber도 이용범위가 넓으며 최근에는 F.R.P의 개발에 따

른 量産化와 實用化가 꽃피우게 되었다.

이와같이 재료와 기술이 디자인을 변화시킴과 함께 생활양식의 전환도 또한 새로운 디자인을 낳았다. 특히 戰後의 주택사정과 기타에 의한 生活 合理化 運動은 생활에 Informal Service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合理的 家具의 디자인을 발전케 하였다.

Flexible Modern의 디자인도 그 표현의 하나이며 Built-in furniture도 발전할 여지를 갖고 있으며 Wall-hanging의 선반도 선반류는 놓는 것이라는 개념을 탈피한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다.

可變式家具·組立式家具나 分解式家具는 형식으로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오늘날의 合理主義的 思考에 합치하여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과 같은 근대적인 전진적 방향을 모색하는 現代家具와 병행하여 歐美에서는 樣式家具에 대한 選好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生産을 계속하고 있음을 주시할 때 우리도 우리 고유의 韓式家具를 아끼고 사랑하는 室內構成의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공고 제 2 호

대한건축사협회 회관현상설계공모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고도의 예술성을 발휘하여 조형공간 창작활동을 영위하는 건축인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건축예술의 총 본산임을 유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회관건축계획 설계를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함.

1. 건립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산61의 3 (589블록)
2. 공모방법 : 현상공모
3. 참가자격 :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4. 등록기간 : 1983. 5. 10~1983. 5. 14
5. 등록장소 : 본부 및 각시도 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1통 (당협회 소정양식)
7. 응모기간
 - 가. 현상설명 : 1983. 5. 16. 10:00시 (당협회 1층 회의실)
 - 나. 작품접수 마감일시 : 1983. 6. 20 17:00시
8. 제출 설계도서
 - 가.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 8조 규정에 의한 계획설계의 범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나. 설계설명서 및 투시도
9. 작품의 심사
 - 가. 심사위원 : 추후발표
 - 나. 당 선 작 : ● 최우수작 1점 ● 우수작 2점
 - 다. 당선작 발표 : 1983. 6. 30
10. 포 상
 - 최우수작 : 200만원
 - 우수작 : 각 100만원
11. 본 설계자의 결정
최우수작품의 설계자에 본 설계계약을 체결함.
12. 설계저작권
응모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한다.
(단, 최우수 당선작은 1회한 당협회에 그 사용권이 귀속됨)
13. 기타사항
 - 가. 당선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당선작 발표후 응모자 요구에 의하여 반환함.
 - 나. 계획설계의 세부지침은 현장설명시 배부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협회 기술부(723-9491~2)로 문의바람.

大韓建築士協會

약속지켜 신용사회
질서지켜 명랑사회